

건물 옥상 무단출입 잦아, 학생 징계도 가능

손보민 기자 sonbomin1025@khu.ac.kr
정재환 기자 jacekh@khu.ac.kr

최근 양 캠퍼스에서 교내 건물 옥상 무단출입 사례가 발생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생회관, 서울캠퍼스(서울캠) 정경대학(정경대)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학생 상벌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국제캠 학생회관 옥상은 각종 우발적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잠금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생이 출입문을 훼손하거나 창문을 통해 옥상에 무단출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제캠 학생지원센터 구영준 과장은 “학생회관 3, 4층 옥상 출입문과 창문을 통해 옥상 무단출입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상시

잠금상태로 유지한 후부터 문제가 반복됐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물건으로 옥상 출입문을 고정하거나 옥상에 동아리 물품을 놓아둔다는 신고도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캠 정경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 들어 정경대 옥상 테라스 무단출입 문제가 반복되자 정경대학 행정실은 보안 및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정경대 행정실은 공지문에서 “학생들이 5층 옥상 테라스 운영시간 외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무단출입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잠금장치 훼손이 반복돼 장치를 보수하는 업체 측에서도 항의가 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경대 학생회 공선진(행정학 2022) 회장은 “한 번 더 잠금장치 파손이 일어난다면 테라스 출입문이 전면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경대학 행정실은 옥상 테라스 무단출입 관련 공지문을 게시했다.

(사진=하시언 기자)

옥상 무단출입은 학생 상벌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다. 학칙 제60조(학생의 의무)와 제70조(징계)에 따르면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교 시설물을 파괴한 경우, 혹은 학내 음주 행위로 학교 업무를 방

해한 경우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가능한 징계로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이 있다.

학생 징계에 관해 구 과장은 “현재까지는 해당 사유로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다”며 “각

동아리와 옥상 출입문에 옥상 출입 관련 협조 안내문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에 해당 창문 창호에 방범 장치를 설치해 창문을 통한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생 개발 도서관 앱 보안성은 숙제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이순현(경영학 2018) 씨가 도서관 앱을 통한 열람실 예약 시 반복되는 튕김 현상과 지체 현상에 불편함을 느끼고 직접 도서관 앱을 만들었다.

이번 학기 개편된 중앙도서관 앱은 잦은 오류와 오작동으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존 앱은 웹사이트를 앱으로

만든 ‘웹 뷰’ 형식이다. 웹 뷰 형식은 로그인 시 불필요한 스크립트와 이미지 등으로 앱에서 브라우저로 보내는 요청 코드가 많아 오류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씨가 자체 개발한 앱은 로그인에 필요한 요청 코드만 보내 응답받는 형식으로 기존 앱보다 훨씬 빠르고 끊김 현상이 적다.

이 씨가 자체 개발한 앱은 열람실 예약이 가능하고, 출입과 도서

대출·반납에 필요한 QR코드를 화면에 표시한다. 앱 로그인 시에는 기존 인포21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현재 700명 이상이 앱을 설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생 자체 개발 앱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다. 바이러스 노출이나, 개발자의 악의적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오픈소스 앱은 취약하지 않냐는 의견이다. 이 씨는 “앱의 코드가 다 공개된 오픈소스 시스템(Github)에서 앱을 생성했기에 개인정보 유출과 바이러스를 심을 수 있는 악의적 코딩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체 개발 앱은 경희대학교 중앙

도서관 브라우저와만 통신한다. 통신 시 앱에 입력한 인포21 아이디(ID)와 비밀번호도 암호화돼 브라우저에 전달되고 브라우저가 이를 인식해 로그인이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ID와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전달되기에, 개발자도 알아내기 힘들다. 자동 로그인에 앱에 저장되는 형식이 아니라, 휴대전화 메모리에 바로 저장되는 형식이기에 휴대전화 주인만 저장된 메모리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코딩에 생각지 못한 취약 부분이 있는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에 주기적으로 개발자가 취약한 부분을 찾아

내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이 씨는 “앱 스토어에 등록되지 않은 앱이라 업데이트가 적용된 앱을 사용하기 위해선 기존 앱을 삭제하고 새로 다운로드해야 하지만, 그래도 계속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황일원 차장은 “오픈소스로 학생이 앱을 자체 개발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개발된 앱이 도서관 서비스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시스템 신뢰성과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면, 도서관 공식 앱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학주보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